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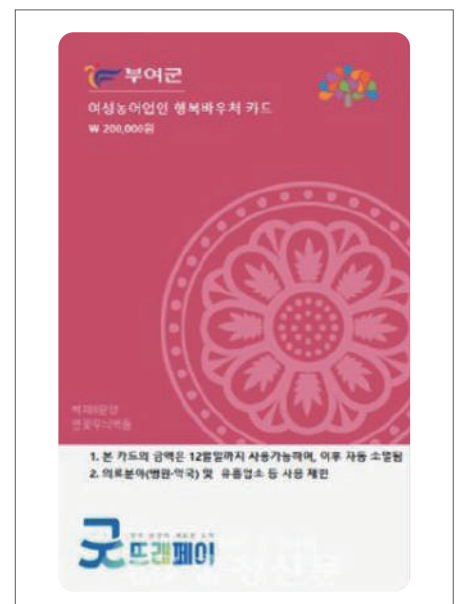
2)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은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구축

-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구축
- 일반발행 (구매 시 할인 및 인센티브 지급) 및 정책발행 (출산지원금, 농어민 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혜택 지급)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

2. 지역화폐 활성화 사례 및 연구원 활동

1) 부여 “굿뜨래페이”

- 2019년 12월 카드와 모바일로 시작한 전국 유일의 공동체순환 지역화폐
 - 굿뜨래페이 사용 시 ‘순환 부가가치’를 창출하고 가맹점 간에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
 - 결제 수수료가 없어 가맹점 부담 절감
-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재난지원금, 결혼정착지원금,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정책발행의 지속적 발굴 및 굿뜨래페이의 안정적 기반화 (충남 평균의 2.6배). 2022년 4월 현재, 발행액 2,400억 중 일반발행 1,330억, 정책발행 670억
- 다양한 기능을 계속 추가하여 굿뜨래페이 생태계 구축 노력 중
 - 출향인사 참여 기능 (출향인사 가입 시, 출향인과 추천인에 각각 굿뜨래페이 지급)
 - 랜덤 인센티브 (이용자 무작위 추첨으로 굿뜨래페이 지급)
 - 기부 기능 (군내 4개 단체에 굿뜨래페이를 기부)
 - 효-공동체 인센티브 (굿뜨래페이로 부모님 용돈 드리면 마을에도 인센티브 지급)
 - 굿뜨래페이 기반 직거래 플랫폼 구상 중
-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군 전체인구의 91% (경제인구의 99%)가 이용 중
- 2020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상, 2020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짐



2) 충남연구원의 연구 활동

- 2021년 2월 금산군 지역화폐 이용자·가맹점 설문 시행 (현안과제)
 - 이용자·가맹점 각 110명을 대상으로 이용 효과,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 설문
 - 응답 가맹점의 88%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을 주었고, 이용자의 56%는 지역화폐 이용 후 새로운 가게 방문, 평소보다 좀 더 소비 지역화폐의 시너지효과를 알 수 있었음
- 2020,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 : 소상공인편 (현안과제)
 - 2020년 2월, 2021년 2월 충남 소상공인 330명 대상의 설문
 - 특히 지역화폐의 효과 만족도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 중 1위로 나타남. 지역화폐 정책 도입 연도에는 현물지원, 매출 상승 효과가 주된 이유였지만, 점차 고객증가로 이어지며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
- 2020년 충남연구원 온라인 지역정책엑스포 개최
 - 도내 15개 시·군가맹점 60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발표 (2020년 10월 설문)
 - 일평균 이용자, 특성, 매출 긍정 여부, 향후 도입 서비스 등 설문
 - 지역화폐 재도입 1년 시점에서 지자체별 효과 분석, 희망 사항 도출
 -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,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, 부여군청과 함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
- 2021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연구모임
 - 기획경제위원회 '코로나19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'에서 충남 지역화폐 사례 소개 및 활성화 방안 제안



3.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태계 확장 및 지속가능성 제고

1) 지역화폐 국비지원 축소 결정으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할인을 축소 불가피

- 현재는 코로나 경기침체 타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% 할인을 제공
-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줄어든 할인을 보완할 다양한 정책 방안 고민 필요

2)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 생태계 확장

-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
 - 정책발행 탑재 : 배달앱, 정책수당 연동, 충남 정책 연계 (농사랑, 견주 등)
 - 이용자 희망기능 탑재 : 인근가게 연계할인, 동네가게 이벤트 알림, 지역이벤트 참가 및 봉사활동 포인트제, 기부기능 등
- 이용자에게 지역화폐 활용이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정책을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설계 필요

3) 상시할인&차별할인 이원화로 지속가능성 제고

- 할인을 축소와 이로 인한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지역화폐 생태계 구축, 차별할인 강화 및 다양화 필요
- 지역화폐 상시 할인(구매 시 할인)을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소득으로 보면, 차별할인은 도/시군의 정책목표 호응, 홍보, 강화에 동참하고 받는 선별적 소득으로 구분 가능
- 차별할인은 단기적용과 상시적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과 연동
 - 상시 적용 : 지역먹거리 활성화(로컬푸드, 미더유 식당, 안심식당 등), 영세 소상공인 지원 (나들가게 등), 지역문화 보존(지역 서점, 전통시장, 환경-ESG 관련 등)
 - 단기 적용 : 일시적 경기부양(명절, 충남 소상공인 주간, 코세페¹⁾ 등), 공공 배달앱 이용자 확보 등

1) 코리아세일페스타 : 대규모 할인 행사와 문화 축제가 결합한 쇼핑 관광 축제로,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라고 할 수 있다.